

2011년 중국의 경제정책 전망과 발전전략 조정

2010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1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과 발전전략 조정
2. 일 시 : 2010. 10. 28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허판(何帆)

1. 중국의 경제순환 주기와 현황

□ 중국의 경제순환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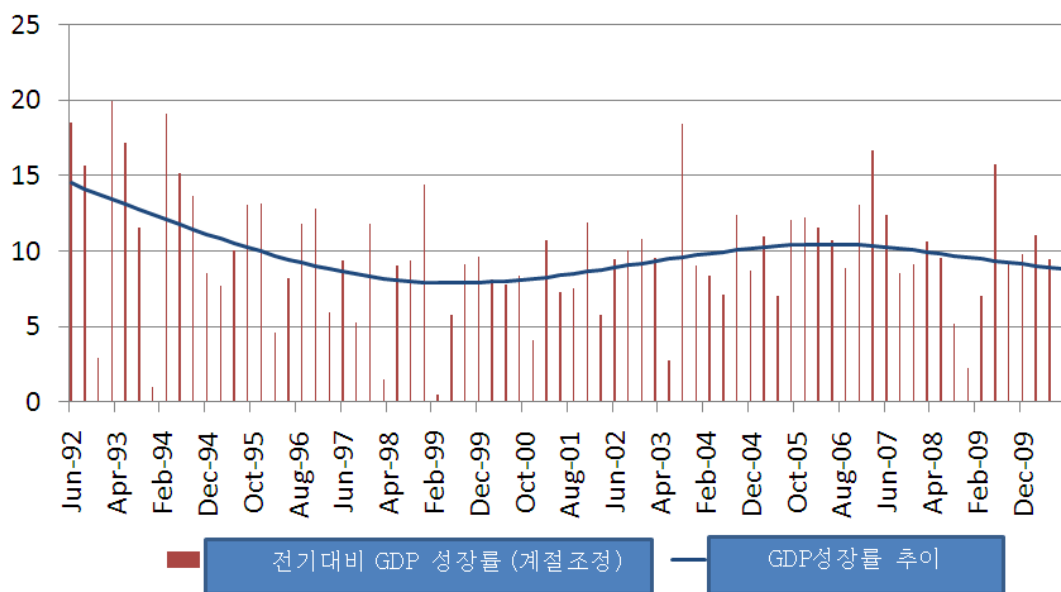
- 199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1992년~ 1998년의 하락, 1999년~2006년의 상승, 2007년~현재까지의 하락 등 2.5개의 주기를 거쳤음.
- 지난 20년간의 중국경제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부터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997년~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경제에 하락세가 나타났음.
- 하지만 그 후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고 2003년과 2004년에 경제과열 현상이 대두되었음. 2003

년과 2004년에 중국정부에서 일부 조정을 추진하였지만 급속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전면적인 경제과열 현상이 나타났음.

- 최근 중국경제는 경제하락 주기에 있으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보다 낮은 수준인 9.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1> 중국경제의 추세와 현황: 산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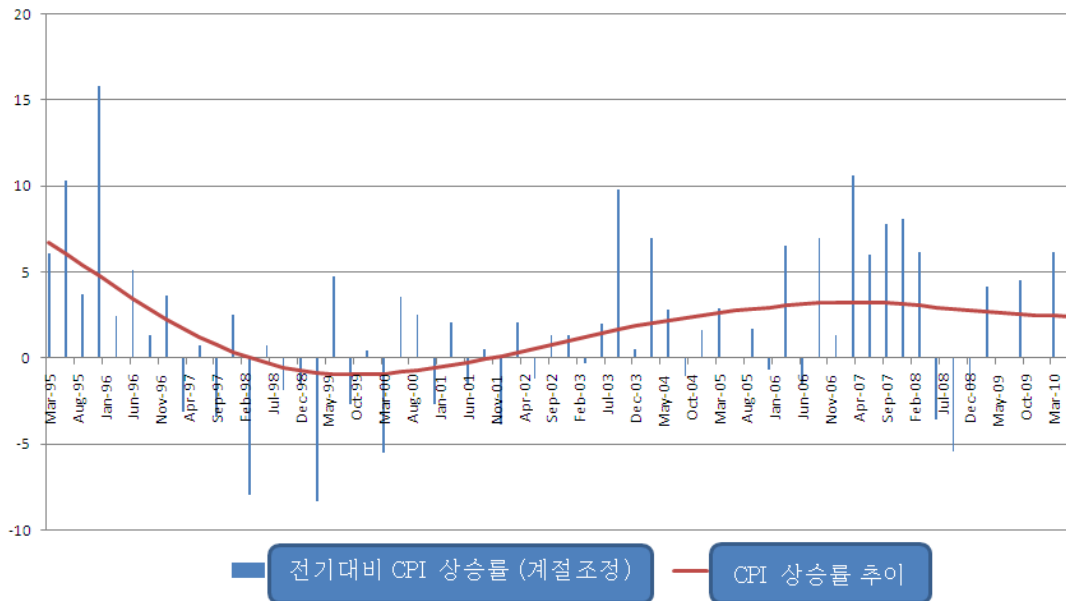
□ 2010년 중국 경제

- 2010년 3/4분기 전년 동기대비 GDP 성장률은 9.6%, 전기 대비 성장률은 6.68%로 추세적 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임.
- 최근 PMI, 공업 부가가치 지표 등에 따르면 4/4분기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극히 적음.
- 4/4분기 계절조정 전기 대비 성장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동기대비 8.8% 성장하여 2010년 한해의 GDP성장률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식품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어 CPI 상승압력이 되겠지만 동기대비 성장률에 대한 이월효과가 약화되어 연말 CPI 성장률은 동기대비 4%내로 통제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2> 중국경제의 추세와 현황: 물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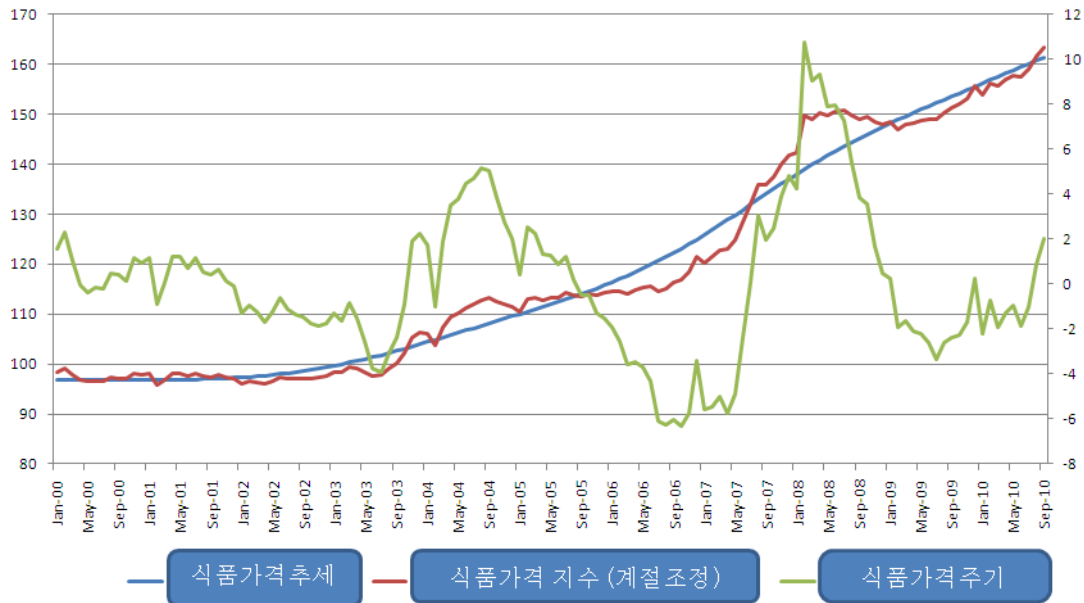


□ CPI

- 중국의 CPI상승률은 경제성장률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중국경제에 필립스 곡선이 존재함을 설명함. 즉 경제성장이 빠를수록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현재 중국에 인플레이션이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경제가 계속하여 하락세를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억제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CPI 중 농산품이 차지한 비중은 약 1/3에 달함. 특히 그중 돼지고기 가격이 CPI에 대한 영향이 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CPI를 "돼지고기 가격지수"라고 비유하기도 함.
- 식품가격 추이를 볼 때 농산품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중국경제의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경제에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2010년 4/4분기에 경제가 계속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적으며, 2010년 한해의 GDP성장률은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2> 중국경제의 추세와 현황: 식품가격



2. 2011년의 실물경제와 환율정책

□ 2011년 중국의 실물경제는 성장속도 하락, 경제구조조정에 있어 가격상승 압력이 예상됨

- 수요: 외수증가 둔화, 내수가 지속 증가될 것이며 개인투자수요는 여전히 각종 제한을 받게 될 것임. 정부의 투자가 수요창출을 견인하게 될 것임.
- 공급: 노동비용이 상승할 것이지만, 노동 생산률의 빠른 제고에 따라 단기 내 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외수증가의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2010년 보다 1~1.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비용 상승+위안화 절상 기대 변화로 인해 뚜렷한 상대가격 조정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상품의 가격지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총체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수요총량이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의 진일보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이며 위안화 절상 또한 물가상승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절상 기대로 인해 석유, 동 등 수입제품 감소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PPI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지만,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CPI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도 있음.
- 또한 중국정책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에너지, 자원가격개혁 가속화에 따른 물가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하락세와 위안화 절상 등 요인은 CPI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2011년 CPI상승률은 3~4%로 통제 가능하다고 예상됨.

□ 계속하여 완화된 재정정책 실시

- 2011년 계속하여 완화된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안화 절상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함.
- 중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건전함. 현재 중국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함.
-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함. 예컨대 인프라시설,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등이 있음. "12차 5개년" 기간 중국의 급속한 인프라시설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13차 5개년" 기간 철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됨.

□ 중부, 서부개발은 미래 3대 투자분야 중의 하나임. 향후 중부와 서부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

장 포인트로 부상할 것이고 그 성장속도는 대부분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였지만 이번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중서부 지역의 정부관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한데, 그중 많은 젊은 관원이 임명되었음. 이런 젊은 관원들은 과거 연해도시 사업경험이 있어 연해도시의 발전경험을 중서부도시에 적용하여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중서부지역의 대다수 노동력이 연해도시로 이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임. 예컨대 FOXCONN사는 허난성 정주(河南鄭州)로 회사를 옮겼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직원채용을 마감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노동력이 아직도 풍부함을 의미함.
- 신흥 산업은 미래 3대 투자분야 중의 하나임. 예컨대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산업, 바이오공학, 신소재산업, 첨단장비 제조업 등 분야가 포함됨. 이는 중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이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함.
- 보장성 주택은 미래 3대 투자분야 중의 하나임. 과거 주로 상품화 주택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음.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향후 보장성 주택, 저가주택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버블 리스크에 대응
- 금리: 2010년 말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2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주기적인 금리인상 조건은 구비되지 않은 상황임.
 - 자산 가격: 대다수 1선 도시 주택가격의 경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하락할 여지가 작음.

-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 기대는 부동산가격에 대해 새로운 상승압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2010년 중국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수차례 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중국 부동산시장에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은 실정임.
- 그 외 단기 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 결과 많은 자산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주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음.
- 중국경제 현황은 2006년과 2007년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음. 우선 경제성장이 빠르고 펀더멘탈이 양호하며,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중앙은행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신규 대출액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2008년 전까지 통화공급 중 절반은 은행대출에 기인한 것이고 남은 절반은 외환비축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2009년 외환비축 증가가 완만하여 은행대출이 통화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하지만 현재 위안화 절상 기대가 강화돼 통화공급구조는 2008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외환비축과 은행대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안화 환율개혁 추진을 가속화

- 2003년~2004년의 위안화 절상 기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새로운 절상기대 배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 즉 무역흑자에 따른 압력이 감소되었지만 외부압력에 따른 압력이 증가되었음.
- 달러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절상될 경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달러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위안화는 외부압력에 따라 절상될 수밖에 없을 것임.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음.
-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책: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채택하지만 그 절상폭이 더욱 클 것이며 통화당국은 적극적으로 환율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것임.

- 큰 절상폭으로 인해 중국 수출입기업의 도산위기, 노동자 실업문제 등 문제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 제공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런 방식은 쇼크요법과 비슷하기에 중국정부는 일회적인 큰 폭의 절상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임.
- 2005년에 소폭적인 절상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사실상 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였음. 왜냐하면 이런 소폭의 절상으로 인해 절상 기대가 점차 확대되었고 더욱 많은 핫머니의 유입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이 사실상 상당히 완화하게 되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환율의 파동성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시킨 후 한동안 유지시키다가 재차 소폭 절하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위안화 환율절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가 있음.
 - 첫째, 산업차원에서 볼 때,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입기업 도산과 수출입 관련 노동자의 실업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하지만 2005년 중국의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은 약 20% 절상되었지만 대량의 수출입기업 도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따라서 그 우려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
 - 둘째, 통화정책 차원에서 볼 때,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음. 금리인상 논의의 초점 역시 핫머니의 대량 유입임. 하지만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의 버블 제거라는 뚜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핫머니 유입의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으로의 핫머니 유입은 주로 금리재정보다는 중국의 자산 가격 상승기대로 인한 것이기 때문임.

3. 12차 5개년 계획

□ 배경: 국제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재균형으로 전환, 신기술 혁명

- 외부요인에서 볼 때, 외수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기에 외수에 기인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에서 내수확대에 기인해야 함.

- 국내요인에서 볼 때,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자들은 이를 "중등소득국가 함정"이라고 비유함. 즉 소득이 중등수준에 달할 경우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임.

□ 주요방향: 발전전략 조정을 가속화

- 향후 중국경제성장은 발전전략 조정 추진에 초점을 둘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성장속도가 완만해짐을 의미함.
- 과거 중국정부는 실업 등 문제가 우려돼 "8% 성장률 유지"를 선과제로 하였지만 현재 중국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실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8% 성장률 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음.

□ 수요의 전환: 도시화, 국민소득분배 구조

□ 공급의 전환: 공업화의 업그레이드,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4. 중국의 발전전략 조정

가. 미래 개혁

□ 자원에너지의 가격개혁

□ 국유기업과 독점산업에 대한 개혁

□ 중앙과 지방의 재정체제 개혁

- 기존 중앙과 지방의 권리분포가 불합리적임. 중앙정부는 민생개선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자금 조달할 것을 요구함.

-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이 없기에 주로 은행대출, 토지판매 등 방법을 이용하지만 이는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농민의 불만 야기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의 자원세, 부동산가격이 높은 동부지역의 부동산세 등 지방조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소득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 성(省)이 현(縣)을 관할: 인력투입, 업무효율 등 요인에 따라 과거 중앙정부, 성(省)1급 정부, 지역(地區)정부, 현(縣)정부, 향(鄉)정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행정구역이 중앙정부, 성1급 정부, 현정부 3개 등급으로 구성된 행정구역으로 개혁될 가능성이 있음.

□ 인구정책

- 중국의 노령화문제가 심각하여 "가족계획(計劃生育)" 정책을 개혁할 가능성이 큼. 현재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25:100으로 성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함.

나.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 지난 30년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공업화였다면, 향후 30년은 도시화가 될 것임.

- 특히 농민의 도시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공업화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임. 예컨대 중국은 곧 노령화사회에 들어설 것이지만 현재 양로원에는 500만~1000만개의 침상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독점 혹은 과도한 제한임.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보면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총체적으로 미래 중국의 중서부지역이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과거 주로 저가상품 수출로 인한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에서 도시화 관련 상품 수입에 따른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응답>

질문 1.

많은 학자들은 금리인상은 핫머니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발표자께서는 금리인상은 자산 가격 상승기대에 대한 저감효과가 있어 오히려 핫머니 유입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음. 현재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높은 부동산가격에 따른 부동산버블을 우려하고 있음. 중국정부 또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억제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음. 그 중 금리인상이 아주 효과적인 조치일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던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임. 또한 곧 실시하게 될 부동산세도 부동산가격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저감시켰지만, 동시에 은행의 부실채무가 증가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기타 문제를 형성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가?

답변 1.

중국의 대다수 부동산 구매자는 은행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현찰로 구입하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효과는 크게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 중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주로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일단 하락하게 될 경우 폭락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중국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중국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길 희망하는 것임. 즉 2009년이나 2010년 1/4분기의 급등현상

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임.

현재 중국의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조정되어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10~20% 하락될지라도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과거 상해, 심천 등 도시에서 부동산가격이 약 30% 하락한 적이 있지만 그때 당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따라서 부동산가격 조정으로 인한 은행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임.

기존 중국의 부실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한 상당히 작은 규모임.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이 20% 하락하였을 경우 부실채무는 2%p 상승하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방법은 공급 증가로 보장성주택과 토지 탄성 증가 등 조치를 채택해야 함. 그 외 수요차원에서 투기적 수요를 저감시켜야 함. 중국의 부동산리스크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으로 아니라 높은 레버리지비율로 인한 것임.

최근 발표된 부동산가격 조정정책은 이전에 실시되었던 조치와 달리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에 1선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될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기(5년 정도)적으로 상승하거나 폭등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인구노령화 등 문제에 따른 가격 폭락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부동산가격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이기 때문임.

질문 2.

최근 갑작스런 금리인상이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인가? 향후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외에 최근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임금인상은 중국에 노동력부족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중국은 이미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노동비용이 대폭 인상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보는가?

답변 2.

최근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위안화 환율절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님. 중국의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하여 왔지만 주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였던 것임. 최근 중국 CPI상승률을 감안하면 2010년 4/4분기에 중앙은행에서 1~2회의 금리인상이 더 이루어질 것이지만 대폭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안화 절상에 있어, 대폭 절상이 아닌 안정적인 절상이 이루어지고 예전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최초 위안화 환율을 절상시킬 때, 중국정부는 수출입 관련 기업의 도산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 사실상, 위안화 절상 이외 중국의 수출입 관련 기업은 수출환급 취소, 노동비용 상승, 고소비·고오염 기업에 대한 억제 등 많은 불리한 정책적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수출입기업은 막강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가졌음을 의미함.

임금상승 문제는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향후 중국의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 아님. 과거 중국의 노동비용이 과분하게 낮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을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임. 지방별 최저 임금 수준이 각이하기에 각 지방의 임금상승 수준과 속도도 서로 다를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중국은 이미 임금상승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질문 3.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의 주식가격이 비교적 높은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금리인상이 주식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동산가격 조정 조치가 실시되면서 예전에 부동산에 투입되었던 핫머니가 증시에 유입하게 되어 주식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음. 금리인상 등 부동산가격 조정과 증시는 서로 관련되지 않는가?

답변 3.

금리인상과 증시의 관계에 있어, 일부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식가격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하지만 금리인상 이후 주식가격은 상승하였음. 현재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의 증시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기존 중국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된 정책으로 증시

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2010년 은행대출액을 7조 5천억 위안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엄격히 지킬 경우 4/4분기에 월별 신규대출액은 4천억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임. 계속하여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핫머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될 것이고 결국은 부동산가격 조정 조치가 실패하거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는 중앙은행에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중요한 배경이기도 함.

질문 4.

11월에 서울에서 G20회의가 개최되고, 위안화 절상 등 중국 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중국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음. 이번 G20회의의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4.

중국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위안화 환율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부상시켜 토론하는 것임.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외부압력으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절상 추진을 가속화시킬 경우 중국의 환율개혁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한국에서 개최될 G20회의에 대해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성장문제를 둘러싼 의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안화 환율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도출하는 것임. 서울에서 개최될 G20회의에서 경제와 성장문제를 둘러싸고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함. 하지만 만약 계속하여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벌어질 경우, 국제 경제성장에 대한 촉진역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환율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훨씬 중요하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임.